

미군 점령기 일본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관의 보급과 냉전 자유주의

정지희**

교과서 『민주주의』의 미디어믹스 〈새로운 길〉*

초록 본고는 탈전후 경향에 대해 일본의 진보 리버럴 지식인들이 재조명하곤 하는 민주주의관의 대중화 과정과, 그 근본적인 전제 및 특징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의 패전과 냉전이 교차한 일본 현대사의 맥락에 비추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점이 성립하고 대중화한 미군 점령기에 초점을 맞추며, 당대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관의 보급과 수용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합작의 사회과 교과서 『민주주의』(1948-1949)의 내용을 활용한 미디어믹스 사례인 NHK 연속 방송극 〈새로운 길〉(新しい道)의 제1부(1949. 11.-1950. 5.)를 분석한다. 이러한 역사화를 통해 이 민주주의관이 냉전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전후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 NHK 라디오 방송, 미군 점령, 아시아·태평양 전쟁

1. 머리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선취한 사회로, 구미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자타 공인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1931-1945)에서 패한 결과 미군 점령하에 성립한 신헌법 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도 탈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5789).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냉전 시대 탈전후 경향의 대두로 다시금 도전에 직면했다.¹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의 제기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수세에 처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여러 시도 가운데, 진보 리버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패전 직후 전후 개혁을 거치며 널리 수용된 민주주의관을 재조명하려는 담론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역류의 시대의 저항축”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²

보고는 이들 지식인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체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패전 초의 민주주의관을 신화화하기보다는 역사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그 대중화 과정과 그 근본적인 전제 및 특징을 패전과 냉전이 교차한 일본 현대사의 맥락에 비추어 규명하고자 한다. 이 특정한 관점이 성립하고 대중화한 미군 점령기(1945-1952)에 초점을 맞추며, 당대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관의 보급과 수용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합작의 사회과 교과서 『민주주의』(1948-1949)의 내용을 활용한 미디어믹스 사례인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의 연속 방송극 〈새로운 길〉(新しい道)의 제1부(1949.11.-1950.5.)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교과서 『민주주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GHQ)의 민간정보 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이하 CIE), 문부성, 일본 저명 학자와 저널리스트의 합작으로 탄생하여 문부성 명의로 출간된 전후 최초의 민주주의 교과서다. 1948년 10월과 1949년 8월에 각각 상·하 두 권으로 출

1 탈전후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후’라는 시간의식 위에서 ‘전후체제’를 탈각하는 모든 지향성”을 가리킨다. 조관자(2017), 「‘전후’의 시간의식과 ‘탈전후’의 지향성」, 『탈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서울: 박문사, p. 17.

2 岩波書店編集部 編(2016), 『私の「戦後民主主義」』, 東京: 岩波書店; 三谷太一郎(2016), 『戦後民主主義をどう生きるか』,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内田樹(2021), 『戦後民主主義に僕から一票』, 東京: SBクリエイティブ; 인용은 吉見義明(2015), 「今こそ『8・15』の原点を見つめよ: 戦後の精神と文部省教科書『民主主義』を読む」, 『金曜日』 23(17), p. 48.

간되어 1953년까지 중고등학교 사회과 특별 교과서로 쓰였다. 탈전후 경향에 대항하려는 진보 리버럴 지식인들이 대중들에게 전후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설명할 때 참고서로 권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다.³ 그리고 교과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라디오 방송으로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고자 한 것이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CIE의 라디오과(Radio Branch)가 기획하고 NHK가 제작한 세미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극이다. 1949년 11월부터 제1부, 1950년 5월부터 제2부 각 26부작으로 편성되어 골든타임인 토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방송되었다. 1부 후반부터 인기를 끌어 1949년 NHK 편성국장상을 수상했고, 2부 방송 당시 NHK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전국 청취율 7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⁴ 인기 덕분에 그 내용을 각색한 극영화 〈노예의 거리〉(奴隸の街, 1951)를 다이에이(大映) 영화사가 제작하기도 했다.

주인공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젊은 귀환 병사 마치다 요스케(町田洋介)로, 요스케는 사상적 혼란을 겪는 와중에 참전 이전의 은사이자 존경받는 정치 철학 교수 고노(河野)를 만나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한편,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폭력단(やくざ) 두목(親分) 무라이 주고로(村井重五郎)의 폭력에 맞서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요스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체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창자로 거듭나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다. 고노와의 대화 중에 교과서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을 극화하여 삽입했다. 제2부는 농촌으로 무대를 옮겨 신문기자가 된 요스케가 농촌의 황폐화와 인신매매 문제 등을 테마로 청년들과 협력하여 봉건적 의식을 타파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교과서 『민주주의』의 경우 제작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당시 사정을 분석

3 吉見義明(2015); 内田樹(2021), pp. 26-44.

4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1 Aug to 17 Aug 1950” (1950), August 18, Folder 8, Box 5318, RG 331.

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⁵ 반면 그 미디어믹스 사례인 <새로운 길>은 국내와 영어권은 물론, 일본에서도 제대로 연구된 바 없다.⁶ NHK가 펴낸 방송사 중 1960년대 중반까지의 방송 활동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1965년 출간 『일본방송사』에도 <새로운 길>에 관한 설명은 비교적 소략하고 주로 인권 옹호를 주제로 한 정보 프로그램이자 다큐멘터리 방송극 형식의 실험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⁷ 그러나 새롭게 발굴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료들에 따르면, <새로운 길>, 특히 그 1부는 교과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개작하여 라디오 방송이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급하려 한 시도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방송극으로 제작된 <새로운 길>은 당대의 민주주의관이 대중적으로 유포되고 수용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이었던 당시에 라디오는 가장 선진적인 전자 매체였다. 또한 책이나 신문을 읽기보다 귀로 듣기를 선호했던 다수의 대중에게도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였다. NHK는 공영방송으로서 보편 서비스를 지향하여 거주지역·연령·성별·교육 정도가 다른 최대 다수의 청취자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홍보하고 청취자 반응을 추적했다. 특히 예능에 정보 선전 내용을 녹여내려는 CIE 라디오과의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대중적 “인기”와 함께 “예능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라디오과가 거

5 片上宗二(1993), 『日本社会科成立史研究』, 東京: 風間書房, pp. 882-908; 明神勲(1994), 「文部省著作社会科教科書『民主主義(上)』(“Primer of Democracy”)の成立経緯」, 『日本の教育史学』 37.

6 미디어 믹스는 본래 복수의 매스 미디어를 조합하여 전개하는 광고 전략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근년에는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에 적용하는 매체의 다각화를 칭하는 의미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정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7 日本放送協会 編(1965), 『日本放送史』上,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pp. 705, 725, 729; 日本放送協会 編(1965), 『日本放送史』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p. 66.

론한 프로그램인 만큼, 적합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⁸

본고는 현지 문헌조사를 통해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사료들을 발굴하여, 교과서 『민주주의』의 내용에 기초한 <새로운 길> 1부의 제작·유통·수용을 최대한 추적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작전 및 점령 사령부 기록(Record Group 331: Records of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National Archives, 이하 RG 331) 가운데 교과서 『민주주의』의 방송극화를 제안하고 제작, 방송, 청취자 반응을 모니터링했던 CIE 라디오과의 회의록·보고서·내부 연락 사항을 찾아내어 사용했다.⁹ <새로운 길>의 녹음판 및 대본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¹⁰ GHQ의 검열도 이미 종료된 시점이라 검열용 원고도 존재하지 않는다.¹¹ 이 논문에서는 그 내용에 가장 근접하는 현존 사료로서 <새로운 길> 제1부 총 26회 방송 내용을 정리하여 NHK가 단행본으로 발행한 방송 원고를 사용했다.¹² 이 외에도 CIE 라디오과의 담당 미군 장교, NHK 기획자·각본가·연출가 등이 남긴 제작기 및 회고, 관련 잡지 기사 등도 활용했다.

2장에서는 우선 교과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NHK 방송극 <새로운 길>로 각색되어 대중적으로 보급된 배경과 경위를 냉전이 고조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방송극을 통해 구체적

8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1951), "Plans for Fiscal Year 1952 (1 July 51 - 30 June 52)," April 22, p. 126, Folder 13, Box 5317, RG 331. 라디오과가 작성한 부분의 서술이다;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2 to 8 March 1950" (1950), March 9, Folder 8, Box 5318, RG 331.

9 미국 The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에 소장된 RG 331 원본과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의 복제본 양쪽을 활용했다.

10 라디오과 주간 보고에 녹음판과 마스터 녹취본을 남길 것이라는 기록은 있으나("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3 to 9 November" (1949), November 10, Folder 7, Box 5318, RG 331) 현재까지 존재가 알려진 바 없다.

11 1949년 10월에 방송에 관한 모든 검열이 종료되었다(山本武利, 2013, 『GHQの検閲・諜報・宣伝工作』, 東京: 岩波書店, pp. 98-105).

12 日本放送協會 編(1950), 『新しい道』, 東京: メトロ出版社. 자료 입수에 도움 주신 오독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으로 어떤 원칙과 전제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거듭 강조되고 어떠한 대중적인 서사와 극적 장치를 통해 구현되었는지를 밝힌다. 4장에서는 〈새로운 길〉에 대한 청취자 반응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당시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패전과 냉전이 중첩된 점령기 일본에서 대중화했던 냉전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관이 노정하는 한계와 현재적 의미에 대해 논한다.

2. 냉전, 역코스,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길〉의 제작 배경과 경위

〈새로운 길〉 제작에 관여했던 NHK 방송인들이 방영 당시 공개적으로 밝힌 제작 동기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문부성 편집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기초로 “‘모든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¹³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서라는 것이다.¹⁴ 하지만 ‘민주화’는 ‘비군사화’와 함께 초기 점령 방침의 핵심이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은 1946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1949년 시점에 새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당시의 NHK 편성국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일본이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지 벌써 만 5년, 그사이 이른바 민주주의는 일단 확실히 뿌렸하게 진보했다. 그

13 根本良雄(1950b), 「〈新しい道〉の企画ノートより」, 『放送文化』 5(8), p. 40.

14 長岡昌(1950b), 「〈新しい道〉の楽屋裏」, 『放送文化』 5(8), p. 47.

러나 최근 갑자기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람들이 입에 담지 않게 된 것도 분명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현상이 일본의 민주주의에의 길이 어느 정도의 준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안정됨에 따라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침착하게 잘 검토하기 시작한 증좌라고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인간 본래의 선의와 애정의 발로로 ‘자유’로워야 할 언론이 경우에 따라 (...) 폭력을 왕성하게 만드는 일조차 있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가를 다시금 반성하게 된다.

(...) NHK의 〈새로운 길〉 방송은 실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와 반성을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고 싶다는 의도로 출발한 것이었다.¹⁵

여기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갑자기 입에 담지 않게 된 상황이란 냉전의 대두를 배경으로 초기의 민주화와 비군사화 노선에 역행하는 GHQ의 점령 정책 전환, 즉 역코스(reverse course: 逆コース)에 따라, 일본 사회 내 좌우 대립이 격화하고 보수 세력의 주도권 회복 시도가 한창 진행 중이던 사회상을 가리킨다.¹⁶ 1947년 맥아더의 2·1 총파업 중지 명령을 신호탄으로, 1948년 1월에는 경제의 조기 부흥을 통해 일본을 아시아에서 “전체주의 전쟁 위협에 대항하는 방벽(deterrent)”으로 삼아야 한다는 케네스 로열(Kenneth C. Royall) 미 육군 장관의 커먼웰스클럽(Common Wealth Club) 연설이 있었고,¹⁷ 워싱턴이 1948년 10월 NSC13/2를 채택하면서 경제 재건을 우선하

15 春日由三(1950), 「序」, 日本放送協會 編(1950), 원문 쪽수 미표시.

16 Hajimu Masuda (2015),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32-244.

17 “Speech by Kenneth C. Royall, Secretary of the Army, on the United States Policy for Japan”(1948), January 6, ‘The World and Japan’ Databas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The University of Tokyo, 2024.12.31.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

는 점령 정책의 전환이 공식화되었다. 민정국(GS) 중심의 뉴딜 사회 개혁과 참모제2부(G2)를 중심으로 하는 반공파 사이의 GHQ 내부 경합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두면서, 가타야마(片山)·아시다(芦田) 내각과 같은 중도 정권을 대체하여 1948년 10월 15일 보수적인 제2차 요시다(吉田) 내각이 성립했다. 11월에는 극동군사재판도 일단락되었다. 당시 신문을 분석한 도미타다케시(富田武)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1948년 말 시점에 이미 일본의 신문 보도에서 “비군사화와 민주화의 논조가 급격히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1949년 1월 23일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35석을 획득하며 약진하자, GHQ와 요시다 내각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다.¹⁸

이런 배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름을 내건 개념의 명징화와 재정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도되고 있었고, 민주주의 개념을 둘러싼 경합 또한 치열했다. 서로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본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득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동원하기도 했다.¹⁹ <새로운 길>의 바탕이 된 교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 개념을 규범화하는 내용으로, 1946년 처음 기획 단계에 비해 역코스의 영향으로 제작 후반에 반공 기조가 강화된 경우다.²⁰

프로그램 초기 기획 단계에 CIE가 작성한 기록을 보면 <새로운 길> 또한 위와 같은 당대 흐름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길>은 1949년 봄 라디오과의 방공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방공을 위해 라디오과는 정보·예능·보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일본인 청취자의 민주화를

JPUS/19480106.S1E.html.

18 富田武(2013), 『シベリア抑留者たちの戦後: 冷戦下の世論と運動 1945-56年』, 京都: 人文書院, p. 80.

19 정지희(2020a), 「전후 민주주의와 그 적들: 미군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와 냉전 자유주의」, 『동양사학연구』 152, pp. 560-577.

20 후반의 반공 기조 강화에 관해서는 明神勲(1994) 참조.

확실히 장려하도록” NHK를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²¹ 프로그램의 직접적 발단은 1949년 3월 25일 방공방안연구위원회(Committee to Study Methods to Combat Communism)가 조사와 연구의 결론으로 라디오과장에게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연속 방송을 항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언”한 일이다. 방공방안연구위원회는 앤서니 카예(Anthony J. Kaye), 드와이트 헤릭(Dwight B. Herrick), 덱시 린지(Dixie Lindsey) 3인으로 구성된 라디오과의 내부 위원회다. 이 위원회가 신설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바로 교과서 『민주주의』의 라디오 방송 버전이었다.²² 이 제안은 4월 15일 CIE국장에게 보고되었다.²³

그 배경에는 냉전의 본격화와 함께 1948년 가을부터 GHQ 내에서 소련의 일본어 방송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었던 역사적 정황이 있었다. 모스크바 방송국의 일본어 방송은 전시 선전 목적으로 1942년에 개시되어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1947년 9월부터 시베리아 억류자의 생활 및 귀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소식 방송(お便り放送)을 개시하면서 일본에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은 수용소 악단 연주를 전파에 실는 등 오락 요소도 곁했다. 특히 억류자 가운데 귀환 예정자의 이름, 주소, 가족을 향한 편지를 방송하면서 청취자를 확보했다. 억류자 가족들에게 직접 엽서를 보내 방송에 관해 알려주는 식의 적극적인 홍보도 곁했다.²⁴ CIE의 라디오과는 이들 방송

21 “Efforts of Radio Branch to Combat Communism” (1951), Intra-sectional Memorandum from OIC, Radio Branch to Chief, Information Division, June 18, Folder 15, Box 5317, RG 331.

22 “Report of Committee to Study Methods to Combat Communism” (1949), Memorandum from Dixie Lindsey to Mr. Grews, Chief, Radio Branch, March 25, Folder 15, Box 5317, RG 331.

23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Methods to Combat Communism via BCI Programming Recommended by the Radio Branch” (1951), April 15, Folder 15, Box 5317, RG 331.

24 島田颯(2016), 「第二次世界大戦中のモスクワ放送: モスクワからの日本語放送はいかにして開始されたのか」, 『アジア太平洋討究』 27; 島田颯(2013), 「伝えようとしていた人と

에 대한 조사 이후 NHK의 방송이 없는 시간대에 소련 방송을 듣지 않도록 NHK에 방송 시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1948년 가을부터 방공 대책에 고심 하던 중이었다.²⁵

아울러 역코스 개시 이후 CIE와 NHK 인력의 보수(保守) 재편 또한 그 배경에 있었다. 라디오과에서는 1949년 초에 이미 번역자·감시요원 (monitor) 등 일본인 군속의 충성도를 확인하고, NHK 방송 기획자·각본가·연출가 가운데 사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NHK로 하여금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있었다. 기획자에 대해서는 첩보를 담당하는 GHQ의 G2에 의뢰하여 사상 검증도 실시했다.²⁶ 당시 “A프로그램”으로 지칭되던 “CIE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정보 프로그램” 기획자는, “유능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신봉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²⁷ A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하는 편성국 사회과 기획자들은 엄밀한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길>의 기획자로 낙점되는 이구치 도라이치로(井口虎一郎)에 대한 검증 내용도 사전에 라디오과에 보고되었다.²⁸

한편 NHK도 내부 보혁 갈등 속에 역코스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공산주의자와 동조자(sympathizer)로 지목한 이들을 방송 기획과 제작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던 와중이었다. NHK는 공무원 노조도 참여하는 1948년 2·1 총파업 계획에 대한 GHQ의 중지 명령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1948년 3월 이후부터 편성국 조직 개편 때마다 공산당이나 일본신문통신방송노동조합(日本新聞通信放送労働組合) 활동 경력 등의 이유로 급진주의자로 분류한 이들

伝えなかった人々: シベリア抑留者の消息とモスクワ放送, 『日口交流』 357.

25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26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Steps Taken by the Radio Branch to Combat Communism” (1951), Intra-sectional Memorandum from Radio Branch to Don Brown, Chief, Information Division, June 16, Folder 15, Box 5317, RG 331.

27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28 “BCJ Social Division Personnel” (1949), From Huggins to Mr. Grews, January 28, Folder 15, Box 5317, RG 331.

을 방송문화연구소나 기술연구소로 발령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라디오과와 공유했다.²⁹

〈새로운 길〉은 이런 시대 배경에서 일단 라디오과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NHK에 이 기획을 제안한 후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 아래 4월 말, 5월 초 시점에서 라디오과가 NHK 편성국 기획위원회 간부들을 불러 “유능한 작가와 기획자”를 배정해 줄 것을 재촉하고, 라디오과에서 “프로그램의 개요(outline)를 작성하여 NHK의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기록만 보아도 그렇다.³⁰ 라디오과가 플롯과 교과서 『민주주의』를 활용한 6회분의 개요를 작성하여 NHK에 넘긴 것은 1949년 8월이다.³¹ NHK 교양부 사회과 프로그램으로 배당되어, NHK의 이구치와 네모토 요시오(根本良雄)가 기획을, 각본과의 나가오카 사카에(長岡昌)가 각본을, 연출과의 겐다 히데오(善田英夫)가 연출을, 다큐멘터리 장르에 조예가 깊은 CIE 라디오과의 리차드 버트랜디아스(Richard Bertrandias)가 지도를 맡았다. 각본의 초고가 완성되면, 버트랜디아스와 한 차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나가오카는 이 시간이 닥치면 마치 “입시 시험 결과를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 증언은 CIE 라디오과의 반응이 갖는 무게를 잘 보여준다.³²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CIE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디오과는 플롯과 6회분 개요를 넘긴 시점에서 “더 많은 주도권과 책임이 NHK에게로 넘어갔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자문단에 나중에 도쿄대 교수가 되는 서양사학자 하야시 겐타로(林健太郎 1913-2004)와 같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물론 라디오과의 신뢰를 얻은 이들로 제작팀을 꾸려 이전에 이미 취지에 관해 여러

29 “BCJ Statement of 23 July 1950” (1950), Folder 15, Box 5317, RG 331.

30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28 April through 4 May 1949” (1949), May 5, Folder 7, Box 5318, RG 331.

31 Radio Branch (연도미상), “Primer of Democracy,” Folder 15, Box 5317, RG 331.

32 長岡昌(1950b), p. 48.

차례 협의했고, 일본인 자문 역시 라디오과와 NHK “책임자”가 함께 “신중하게 선정”한 이들이었으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³³ 일례로 하야시는 전전에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다가 전후에 보수로 전향하여 좌익 비판에 앞장서면서 냉전 자유주의 단체인 일본문화포럼(日本文化フォーラム) 결성에 관여하고, 나중에 자민당 의원까지 지내는 인물이다.³⁴

각본을 담당했던 나가오카가 당시에 NHK의 월간지 『방송문화』에 쓴 글은 <새로운 길> 방송 원고가 긴밀한 협업으로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우선 기획자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 “이미지”를 간직한 채로 원고를 쓰기 시작한다. “기획자의 의향, 연출가의 의도, 이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CIE의 버트랜디아스 씨의 시사”를 염두에 두며 초고를 작성하고, 이후 각본과 승인 담당, 기획자, 버트랜디아스, 연출가 각각의 의견을 들으며 차례로 정정하여 각본을 완성한다는 것이다.³⁵ “계몽 방송”을 어떻게 “재미있고”도 “생생한(血の通る) 드라마”로 만들지, 어떻게 “정보를 극의 줄거리 자체 안에 짜 넣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도록 융합시킬 것인지”를 각자 고심했기 때문이다.³⁶

중요한 것은 라디오과의 공감대 위에 방송인들이 자의로 채워나간 부분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1부 후반 이후의 내용 구성에는 NHK 방송인들의 역할이 컸다. 라디오과의 초기 구상이나 기안에는 시베리아 역류 귀환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 주인공이 은사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며,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져온다는 계획은 있었

33 Radio Branch (연도미상).

34 일본문화포럼은 CIA와 포드 재단이 지원한 냉전 자유주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자유문화회의(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의 일본 지부다.

35 長岡昌(1950b), pp. 47-48.

36 根本良雄(1950b), p. 46; 根本良雄(1950a), 「愛情をもって育てたい」, 日本放送協会 編(1950), p. 314.

으나, 〈새로운 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열개인 폭력단 두목과 부하(子分)들에 맞서는 전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³⁷ 기획자 네모토는 극적 요소를 위해 “민주주의의 대조적 존재”이자 “올바른 자유 인권 사상에 반하는 풍속관행 중 현재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전형”적인 것으로 폭력단의 두목-부하(親分子分) 관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³⁸

이 외에도 비민주적이거나 인권 유린 사례로 1부 후반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당시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언론에 크게 다뤄졌거나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들이었다. 폭력단과 검경의 유착이나 인신매매 사건이 그 예다.³⁹ 방송인들은 다큐멘터리로서의 “박진”한 묘사를 위해⁴⁰ “생생한 자료”를 구하러 관청·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도처에서 민주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적절하게 삽입”하여⁴¹ 방송극에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현실감을 불어넣었다.

젠다의 연출의 변은 방송인들 또한 민주주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길〉의 취지에 공감하고 열의를 갖고 임했음을 시사한다.

나는 이 방송을 연출할 때 무엇보다 우선 내가 이 테마에 큰 정열이 있었다. 파란의 시대에 고뇌하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의와 노력에 비해 노고를 감내해야 하는 생활에 날마다 허덕이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일본의 출발을 희망해 마지않는 한 사람이었던 까닭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방송극에 심혈을 기울였다. 거친 각본의 흐름에 생기와 혈색과 숨결을 불어넣고, 고뇌하고 반성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숙명을 냉정히

37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7 to 23 November” (1949), November 24, Folder 7, Box 5318, RG 331; Radio Branch (연도미상); [Anthony] Kaye (연도미상), “Primer of Democracy,” Folder 15, Box 5317, RG 331.

38 根本良雄(1950b), p. 46.

39 日本放送協會 編(1950), pp. 186, 200.

40 善田英夫(1950b), 「私の演出メモより」, 『放送文化』 5(8), p. 48.

41 根本良雄(1950b), pp. 46-47; 根本良雄(1950a), p. 315.

응시하여 이것을 극에 재생하기 위해서.⁴²

요컨대 <새로운 길>은 냉전의 고조와 역코스를 배경으로 “민주주의의 배경과 기본 원리”를 널리 알려 “공산주의에 대적하는”(combat communism) 것을 목표로 라디오과가 기안하고, GHQ가 ‘올바른 민주주의’로 간주한 특정한 민주주의관에 공감하여 그 관점을 일본의 현실에비추어 풀어내고 장려하고자 한 방송인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⁴³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대중화를 꾀했던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3. 시베리아 억류 귀환자의 ‘민주주의’ 적응기: <새로운 길>과 냉전 자유주의

<새로운 길>에는 구미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 일본 민주주의의 역사, 선거권, 다수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등, 교과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의 내용이 녹아 있다.⁴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길>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으로 상정한다. 개인 존중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나아가 파시즘과 공산주의 양쪽과 대비되는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상정하면서 가치 다원주의, 반결정론, 소극적 자유의 옹호 및 자유주의적 범치주의와 같은 냉전 자유주의의 원리들로 민주주의를 설명한다.⁴⁵

42 善田英夫(1950a), 「演出に全情熱を」, 日本放送協会 編(1950), p. 316.

43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44 文部省(1995[1948-1949]), 『民主主義: 文部省著作教科書』, 復刻版, 東京: 径書房.

45 냉전 자유주의 개념에 관해서는 Jan-Werner Müller (2019), “The Contours of Cold War Liberalism (Berlin’s in Particular),” in *Isaiah Berlin’s Cold War Liberalism*, edited by Jan-

다만 방송극인 만큼,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인공 요스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전문학교를 나와 통신기계 회사에서 일한 지 2개월 만에 징집되어 2년간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4년간 시베리아에 억류된 인물이다. 고노는 건강 문제로 학교를 잠시 휴직하고 자유인권협회에서 활동하며, 신헌법과 남녀 보통선거 등의 새로운 법제와 교육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에 기대를 거는 자유주의자다.

주인공이 시베리아 억류 귀환 병사라는 설정은 민주주의 교육을 표방하는 극의 전개를 위한 장치다. 라디오과의 주간보고서에는 이 설정이 “순전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구상들을 전개할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오랜 억류 생활로 “환멸”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귀환자의 재적용 과정이 궁극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를 보여줄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⁴⁶ 실제로 극중 고노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할 때 요스케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반문하면서 답을 찾아나간다.⁴⁷ 즉 요스케의 환멸과 혼란은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문답과 논쟁을 통해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능동적 듣기를 장려하는 한편, 요스케의 재교육이 일방적 세뇌가 아님을 시사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의 패전과 냉전이 교차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설정은 <새로운 길>이 대중화하려 한 특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역코스 이후 보혁 대립 상황에서 시베리아 억류 문제가 극단적으로 정치화하면서, 귀환자의 이미지 또한 표상을 둘러싼 일종의 전장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길>이 방송되기 직전인 1949년 여름 이

Werner Müller, Singapore: Springer, pp. 37-56

46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1949), November 24.

47 예를 들어, 日本放送協會 編(1950), pp. 29-38. 본고의 3장에 한하여 이 책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괄호 안에 쪽수만 적었다.

후에 마이즈루(舞鶴)항을 통해 상륙한 귀환자들에 대한 보도는 가족들도 외면하고 혁명가를 합창하며 데모 행진하는 이른바 ‘적기파’(赤旗グループ)를 대서특필하며, 소련의 정치교육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적화한 억류자’라는 편견을 구축하고 강화했다.⁴⁸ <새로운 길>에서도 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활용했다. 요스케의 정혼자 미치코(道子)가 마이즈루 귀환원호국에 다녀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스크램블을 짜서 ‘동지들’끼리 [공산]당사로 향하는 귀환자들을 목도하고 위화감을 느껴 요스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노심초사하는 장면이 그것이다(pp. 8-10).

돌아온 요스케는 오히려 자신은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귀환자가 아니라며 선을 긋는다(p. 23). 즉 억류 중 세뇌되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존재로서의 귀환자 이미지는 요스케가 그들과는 달리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성향의 인물임을 보이기 위해 동원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요스케에게는 억류가 개인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에게 동의를 강요당한 경험이며,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전시 징집 체험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요스케: 입대하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신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군대에 들어가니 자신을 버려라,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모두 천황폐하에게 바쳐야 한다는데, 거기에 개성이 있어도 되는 건지...? (...) 무장 해제되어 시베리아에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칙유는 『러시아공산당사』로, 전진훈(戰陳訓)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요당하는 것뿐으로, 언제나 지도자에게 동의해야만 했습니다.(p. 25)

48 富田武(2013), pp. 81-85; 이러한 이미지가 비가시화했던 귀환자들의 복잡한 사정과 내부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는 吉見義明(2014), 『焼跡からのデモクラシー: 草の根の占領期体験』下, 東京: 岩波書店, pp. 146-174.

이런 경험 때문에 고노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요스케는 “더는 자신의 신념을 찾을 수 없다”며 회의를 표한다. 이에 고노는 요스케가 “지금까지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반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라고 강조한다(p. 26). 민주화한 “새로운 일본”에서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 의지에 기초해 정치하도록” 하므로, “지도자나 보스(ボス)”는 “일절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 30).

즉 요스케의 억류 경험은 일본의 전시 체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체제로 소비에트 체제를 표상하는 매개다. 그 전제는 점령 초기 미일 합작으로 구축되어 널리 대중화되었던 태평양전쟁사관이다.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전시 지도자와 그들의 진상 은폐와 폭압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일본 민중이라는 도식에 기대고 있는 전후의 지배적인 전쟁관이다.⁴⁹ 전시 지도자의 사고방식은 극중에서 ‘독재주의’로 명명되므로, 공산주의의 운영 원리 또한 독재주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청취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들 독재주의에 반대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그중에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구미 자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문답을 통해 강조한다. 천부인권은 “자유와 재산소유, 안전과 압제에 대한 저항 권리”로 설명하고(p. 93), 미국·영국·프랑스의 대의제 민주주의 발달 사례만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소개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선거권 확장의 역사”로 규정한다(p. 267).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현상, 즉 독재이며 독재자가 휘두르는 폭력이다(pp. 35-36, 47, 120-124, 163-164). 독재에 맞서려 했던 제도로서 교과서에는 없던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를

— www.kci.go.kr
49 吉田裕(1995),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のなかの変容』, 東京: 岩波書店, pp. 31-33.

소개하기도 한다(p. 32). 이는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레드 퍼지를 민주주의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다. 독재와 폭력에 맞서는 방법은 시민 각자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눈을 떠 법을 지키고 적합한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것이다(pp. 164, 176, 185-186, 228).

〈새로운 길〉에서는 일본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주소도 패전이라는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고노는 일본에 “다른 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들여 만들어낸 데모크라시(デモクラシー)가 갑자기 주어진 셈”이라고 말한다. “전쟁 전에도 민주화운동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군벌로부터 탄압받아 거의 질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p. 43). 한편 고노는 메이지 유신으로 봉건제는 일소되었다고 해도, 구시대의 잔재인 번벌(藩閥) 세력이 권력을 쥐고 만들어낸 흥정헌법의 비민주적인 조항들과 결합이 이후에 군벌이 독재를 휘두르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본다(pp. 107-114, 119-120). 그리고 패전 후에 “갑자기 독재주의가 추방”되고 “모든 게 선거와 다수결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국민이 정치상의 자각과 자신들의 책임에 눈떠 다수결을 올바르게 운용하지 않으면 모처럼 [이뤄낸] 민주정치도 중우정치가 되어버린다”고 우려한다(p. 164). 신헌법으로 “일본은 일단 훌륭한 민주국가가 되었는지 몰라도, 실제 사회에서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로 인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노의 현실 인식이다(p. 186).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따라 극은 자연스럽게 현실의 “비민주적”인 문제들로 눈을 돌린다. 민주주의에 관한 고노와의 문답을 통해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해하게 된 요스케가, 고노가 “민주주의의 적”이자 “일본 재건을 방해하는 자”라고 칭하는 무라이의 회사에 취직하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스가 용인되지 않는 건지, 왜 무라이가 민주주의의 적인지 스스로 알아보겠다는 뜻을 밝히는 장면이 그 신호탄이다(pp. 98-100). 무라이는 사업가로 위장한 폭력단의 두목으로, 다른 마을의 폭력단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의 경찰·관청·신문사·공안위원회에까지 줄을 대고 있는 유력자다.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매수와 폭력을 일삼고 마을 상인들과 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마을의 작은 히틀러”가 되고자 하는 자로 묘사된다(p. 145). 무라이가 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그 실체를 폭로하고 당선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요스케와 신문기자 마쓰야마(松山) 등 주변 조력자들의 활약이 펼쳐진다.

〈새로운 길〉은 고노의 입을 빌려 “봉건주의”와 “폭력주의”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적시하는데, 무라이는 이 모두를 체현하는 존재다(p. 277). 고노는 폭력단의 기원을 도쿠가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치정 시기로 설명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졌음에도 이들은 살아남았으며, 따라서 무라이와 같은 보스는 “봉건 시대의 잔재”라고 설명한다(pp. 100, 235). 이 관점에 따르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부하들이 두목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의리와 인정이라는 유대감(絆)에 속박”되는 “넓은 봉건적 도덕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고노는 “개인의 존중과 개인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한 명 혹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이 곧 “독재주의”라고 말한다(p. 235). 무라이가 폭력에 기대는 것은 바로 이 독재권을 휘두르기 위해서로 정리된다(p. 278).

흥미로운 것은 무라이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마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무라이에 맞서야 할 당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무라이와 전시 지도자 사이의 유비관계를 강조하며 전시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트라우마를 전후 ‘민주주의의 적’에게 투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무라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와 폭력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일본과 추축국의 전시 지도자들이 저지른 폭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인간은 말로 표현하여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힘에 호소하는 법이라며, 그 예로 “군벌 독재”를 행한 전시 지도자들의 “일련의 폭력주의가 국민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식이다(p. 138). 무라이를 “작은 히틀러”가 되려는 자로 부르면서, 히틀러는 “군비를 과신해 무도하게도 폭력을 외부로 향해 국민을 그 비참한 전쟁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p. 145). 전시 지

도자와 무라이를 전후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동일선상에 놓는 설정이다.

무라이에 맞서자고 호소할 때도 전시 군부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에 빗대 전시 과거에 대한 회한을 현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고노는 신문사 인터뷰에 응해 “예전에 우리는 군벌의 비행을 못 본 척하고 감히 그 부정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사회의 실현은 불확실하다. 무사안일주의로 폭력에 대해 눈을 감으면, 우리는 저절로 보스나 [폭력단] 두목에게 권력을 바치게 된다.”라고 경고한다(p. 275). 고노는 전시에 헌법의 결함과 언론 탄압으로 독재자가 권력을 쥐게 두었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법의 힘으로, 언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위를 설득한다(p. 236). 극에서도 진실 보도를 신념으로 삼는 신문기자들이 무라이의 악행을 폭로하고 무라이와의 유착 관계를 끊으려는 경찰이 법률에 의거해 공권력으로 무라이의 계략을 무화시켜, 폭력이 두려워 나서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무라이에게 입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이끄는 과정이 그려진다.

무라이를 직접 접하고 무라이의 악행을 저지하는 과정을 통해 요스케 또한 징집과 억류 당시 지도자들에게 가졌던 불만을 전후 민주주의의 적인 무라이에 대한 분노로 ‘승화’하며 내적 변화를 이뤘다. 귀환했을 당시에는 “내지(内地) 사람”은 왜 그렇게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라이를 직접 접하고는 “일본에는 아직 비민주적 사회가 남아있”기 때문임을 이제는 안다고 말하게 된다(pp. 118-119). 이후 요스케는 스스로 무라이와 폭력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며 무라이에 대적하는 능동성을 띤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 교육을 완전히 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무라이에 대한 분노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에 직결시켜 인식하기에 이른다.

요스케: 선생님, 저는 복원(復員)되어 돌아왔을 당시에는 정말로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 그로부터 6개월,

지금은 무라이와 같은 보스의 정체를 똑똑히 보고 나니, 전신에 분노를 느끼니다. 이 분노가 무언가 데모크라시와 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p. 234)

민주주의의 적을 일소하겠다는 요스케의 의지는 이제 그 누구보다 강하며, 결국 요스케는 고노로부터 “민주주의의 투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p. 303).

무라이를 몰아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노는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마을을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단결해서 무라이에 부딪쳐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p. 250). 일견 민중의 집단적 직접행동을 옹호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다. 고노가 보기에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힘”이기 때문이다(p. 250). 결국 협의와 합의를 거쳐 마을 사람들 개개인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무라이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선거에서 무라이가 낙선하고 경찰 검거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극의 절정을 이루며,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 “민중이 무라이를 쓰러뜨린” 성취로 자리 매김된다(p. 297). 무라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기자들과의 인연으로 요스케가 신문사에 기자로 취직하게 되면서 미뤄뒀던 미치코와의 결혼에도 성공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새로운 길>에 당시의 청취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CIE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그 구체상을 살펴본다.

4. 청취자 반응으로 본 민주주의관 수용

NHK 방송인들과 CIE 라디오과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새로운 길>에 대해 방송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연출가 젠다는 처음 몇 회

까지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내내 〈가시밭길〉”이었다며, “청취자로부터 비난” 투서가 “책상 위에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켄다는 계몽적인 내용 때문으로 이해한다.⁵⁰ CIE 라디오과의 버트랜디아스 또한 “정부의 선전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투서 내용을 밝혔는데,⁵¹ 이는 켄다가 ‘계몽 프로그램’이라 부른 CIE의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된 반응이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종종 전시의 정부 방송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고, 정보 캠페인에 드라마와 같은 예능 형식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길〉과 같은 세미다큐멘터리 드라마가 고안된 것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⁵² 특히 고노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강의하는 초반은 아무리 문답 형식을 갖추고 극중극 형식으로 음향효과 등 특수효과를 더해도 설교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한편 역코스로 좌우가 참여하게 대립했던 당시의 정치·사상 지형에서 프로그램의 계몽적 성격에 대한 불만 이상으로, 〈새로운 길〉이 내세운 정치적 메시지에 반발이 컸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트랜디아스가 밝힌, “참으로 바보 같은 이데올로기”라거나 “반민주적, 반공적[이라고], 솔직히 해라”라는 내용의 투서는 이러한 반발을 시사한다.⁵³ CIE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초기의 부정적인 반응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반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제 위에 CIE 라디오과는 “반동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며, 전적으로 반민주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맹렬한 공격이야말로

50 善田英夫(1950a), 312.

51 리처드·파트랜디아스(1950), 「聴取者は望んでいる」, 『放送文化』 5(8), p. 45; 같은 투서 내용은 CIE 내부 연락사항으로도 보고되고 있다[“Audience Response to the ‘Primer of Democracy’ (New Road) Radio Program” (1950), From Bertrandias to Herrick, March 28, Folder 7, Box 5319, RG 331].

52 “Radio Organ Magazine Opinion Survey on ‘What the Public Wants from BCJ Broadcasts,’ Hoso [sic], 1 July 1949” (1949), Folder 4, Box 5320, RG 331.

53 파트랜디아스(1950), p. 45.

이 프로그램이 유효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론짓는다.⁵⁴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길〉의 유효성을 따지려면, 이 프로그램이 널리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적으로 유포하고자 했던 특정한 민주주의 개념이 청취자들에게 수용되었는지를 가능한 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청취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자료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그 대신 NHK가 〈새로운 길〉 앞으로 오는 투서를 정리하여 라디오과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가 CIE 보고서와 내부 연락 사항에 남아있어, 수용자 반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제작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회고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다.

우선 NHK 제작진과 라디오과가 기술한 바를 종합하면, 청취자 반응은 뒤로 갈수록 호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투서의 양 자체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CIE 라디오과가 공산주의자들이 보낸 것으로 상정한 비판적인 투서 대신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게 된다.⁵⁵ CIE 내부 보고서와 연락사항을 종합해볼 때 라디오과가 〈새로운 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 것은 18회가 방송된 1950년 3월 18일 직후의 일이다. 3월 23일 자 라디오과 주간 보고에는 시청자 호응도에서 〈새로운 길〉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6회 방송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연장을 제안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⁵⁶ 1950년 3월 28일에는 버트랜디아스가 헤릭에게 “청취자의 우호적 반응과 요망”에 따라 〈새로운 길〉을 영화화할 것을 제안했다.⁵⁷

NHK가 1950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받은 212통의 투서를 분석한 후 1950년 3월 24일 자로 라디오과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 무렵 청취자 반응의 비율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노예니 인권이니 아우성치는 것이 싫다”거

54 “Efforts of Radio Branch” (1951).

55 버트랜디아스(1950), p. 45.

56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6 to 22 March 1950” (1950), March 23, 1950, Folder 8, Box 5318.

57 “Audience Response” (1950).

나, “억류 귀환자라면 미국식 민주주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 회의적인 투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서 내용 분류를 보면 긍정 124, 요망 23, 문의 10, 자료 5, 반대 4, 의문 2로, 라디오과의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투서가 이 보고서에서 뽑은 긍정적인 답의 “전형”이었다.

나는 고등학생입니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지만, 민주주의의 역사나 보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방송되면서 나는 이 프로그램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이것(<새로운 길>에서 배우는 것)은 내게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용감하고 유익한 드라마는 처음 듣습니다.

보고서상의 요망 사항 또한 시간을 30분 연장하라거나, 영화화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취자의 적극적인 호응을 시사하는 것이었다.⁵⁸

1950년 2월 18일 방송된 14회 이후 청취자 투서에 대한 주간 보고 자료에서도 긍정적인 청취자 반응의 일단을 추가적으로 읽을 수 있다. NHK방송문화연구소 고사과(考査課) 투서반(投書班)에서 분석한 내용을 라디오과에서 영역한 자료다. 방송 시간 연장과 극의 영화화 내지는 원고의 출판을 요구하는 내용, “30분이 꿈같이 지나간다”라며 극의 흡인력을 칭찬하거나 요스케를 응원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길>이 도시부를 다루고 있으니 “인권관점”에서 시골의 보스 문제도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다. 한 중학생은 <새로운 길>이 중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마찬가지로”이며, 중학생이라면 모두 자신에게 동의할 것이고, 어른들도 감사해한다고 쓰고 있다. 한 노동자의 투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열렬한 청취자”라며 방송을 계속하라고 요청한

58 “BCJ Report on Mail Response to ‘Primer of Democracy’ Radio Series” (1950), March 24, Folder 7, Box 5319, RG 331. 연령·성별·지역 등에 따른 의견 차이는 제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

다. 다수의 청취자가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쉬운 설명”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길〉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투서반의 결론이다. 투서반에 따르면, 주요 청취자층은 “소년, 소녀”, “지방의 젊은이와 학생,” “대학생과 중학생”이다.⁵⁹ 방송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부동의 청취자층”이 되어준 것은 “젊은 세대”였다는 젠다의 증언과 일치한다.⁶⁰

한편 비난이 줄어든 이유를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레드 퍼지에 더해 1950년 1월부터 공산당의 내분으로 좌익 세력의 정치력이 약화되었던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⁶¹ 아울러 시베리아 억류자 복원이나 구미 자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집중하는 초반 내용과 달리, 후반의 서사는 좌익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전제 위에 구축된 점을 들 수 있다. 후반은 일본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회한 위에 새로운 전후 일본의 재건을 봉건 잔재인 폭력단 두목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민중 사이의 싸움으로 풀어냈는데, 그 근처에는 봉건적 전시와 민주적 전후, 혹은 폭력을 휘두르며 진실을 은폐한 전시 소수의 군부와 어쩔 수 없었던 민중이라는 대립구도가 전제되어 있다. 이 구도는 전전의 봉건성과 전근대성을 비판하며 그와 완전히 단절된 미래상을 그렸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관에 조응한다.⁶² 실제로 점령 초에 이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고 대중화

59 “Weekly Report (from 19 to 25 February 1950) Issued by the Fan Letter Unit” (1950), February 27, Folder 11, Box 5314, RG 331; “Mail [sic] from Listeners no. 209 (19 to 25 Feb)” (1950), March 2, Folder 11, Box 5314, RG 331; “Mail [sic] from Listeners no. 211 (5 to 11 March)” (1950), April 6, Folder 11, Box 5314, RG 331.

60 善田英夫(1950a), p. 316.

61 오구마 에이지(2019), 조성은 역,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pp. 351-355.

62 강좌파(講座派) 계보를 잇는 전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 관해서는 박진우(2011), 「일본 ‘전후역사학’의 전개와 변용」, 『일본사상』 21; 나가하라 게이지(2011), 하종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서울: 삼천리, pp. 166-168.

하는 데 GHQ뿐 아니라 공산당계 좌익의 역할도 컸다.⁶³

〈새로운 길〉의 성공이 확실해진 시기가 극중 요스케가 능동적으로 무라이와 대립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처럼 봉건 잔재로 규정된 민주주의의 적과 싸우는 이야기가 청취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극에 적절히 녹여낸 결과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접하는 듯한 현장감을 더했던 점이 주효했다. 각본가 나가오키는 이 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길〉에는 현재 일본의 도처에서 민주화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적절히 포함시켰다. 신문 잡지에 나온 사건은 물론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투서로 알려주는 여러 사건의 의의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 이런 이유로 요스케는 여러분 마을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청년이고,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길은 아득히 먼 저쪽에 있다고 믿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⁶⁴

다큐멘터리드라마 형식 또한 그러한 현장감을 더했다. 실제 마을의 보스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극에서 다룬 신문기자에 대한 폭행이 정말 사실인지를 문의하는 청취자도 있었다.⁶⁵ 〈새로운 길〉이 청취자들에게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음을 방증한다. 〈새로운 길〉투서 가운데에는 극중 고노와 마쓰야마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언급되며 요스케도 가입을 희망했던 자유인권협회의 주소와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한 문의 또한 여러 건 있었다. 실제로 자유인권협회에서

63 정지희(2020b),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 미일 합작의 진실 찾기와 역사 다시 쓰기」, 『일본비평』 22.

64 長岡昌(1950a), 「脚本家の弁」, 日本放送協会 編(1950), pp. 315-316.

65 “BCJ Report” (1950).

도 <새로운 길>에서 몇 차례 언급되면서 문의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⁶⁶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해 극중에서 민주적으로 묘사된 단체에 실제로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청취자 반응은 <새로운 길>이 제시한 특정한 민주주의 이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전후 민주주의의 규범으로 수용되었음을 시사한다.

5. 맺음말

본고는 탈전후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진보 리버럴 지식인들이 재조명하곤 하는 민주주의관의 성립 및 보급 과정과 그 전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미군 점령기 미일 합작 교과서 『민주주의』를 라디오 방송극으로 풀어낸 <새로운 길> 사례를 분석했다.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들을 냉정히 직시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한 민주주의관을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역사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였다.

<새로운 길>의 사례는 전후 초에 대중화한 민주주의관이 패전과 냉전이 교차한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미일 합작의 산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로운 길>은 냉전의 고조와 역코스 개시 이후 보혁 대립 구도에서 ‘방공’을 목표로 구미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을 규범으로 상정하고 개인주의·자유주의·대의제·법치주의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점진주의를 일본인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유일하고도 올바른 민주주의로 제시했다. 명시적인 반

66 “BCJ Report” (1950).

공 수사를 동원하거나 현실 공산주의 체제를 비방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고 개인을 우선하는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규정하기 위한 반레이자 봉건 독재로 표상된 전시 체제와의 유비관계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패전에 대한 회한으로 전시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시와 단절하고자 하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열망을, 냉전 자유주의 원리들을 유일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새로운 길〉 1부 종방 직후 일어난 한국전쟁의 여파로 일본 내 보혁 갈등이 보수적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나고, 〈새로운 길〉에서 독재주의의 대립항으로 상정했던 의회제 자유 민주주의가 전후 민주주의로 간주되는 의미론적 변화가 진행되었다.⁶⁷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가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전쟁 기억의 풍화로 위기에 처한 것은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냉전 자유주의와 패전에 대한 회한 및 독재주의에 대한 대결의식이 그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탈전후 경향의 대두를 전시 독재주의 역사의 반복으로 간주하여 전후 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새기자는 일부 진보 리버럴 지식인들의 주장은 현재 일본이 직면한 문제들은 물론, 전후 민주주의의 역사성과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일례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강조한 〈새로운 길〉에서 공권력의 남용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 문제로 접근하지만, 정작 시베리아 억류 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인권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한계를 노정한다. 냉전의 영향 아래 억류 문제가 정치화하면서 귀환자의 생활보호는 방치되다시피 했고, 레드 퍼지가 한창 진행되던 분위기에서 세뇌되고 적화된 귀환자라는 편견으로 인해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했다.⁶⁸ 요스케가 억류 귀환자라는 이유로

67 오구마 에이지(2019), pp. 356-357.

68 富田武(2013), pp. 71, 85-86; 吉見義明(2014), p. 169.

취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폭력단 두목인 무라이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전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이는 ‘자유로운’ 개인의 재적응과 갱생의 문제로 취급되며, 요스케가 신문사에 취직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군사 독재를 겪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간주하는 전후 일본의 지배적인 시각은 이들 나라가 탈식민 과정에서 폭력과 내전에 휘말리고 냉전 체제하에서 열전과 독재를 겪은 경험이 일본의 제도적 민주화 선취와 무관하다는 전제 위에 가능하다. 전쟁이 연합국과 일본인들에게 저지른 군부 독재의 폭력이었고 독재주의를 일소하는 것으로 전시와의 단절을 이뤄냈다는 믿음은, 일본이 이들 나라를 지배하거나 전쟁으로 몰아간 제국이었고, 냉전 체제하 아시아의 ‘방벽’으로 인지된 덕분에 열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민주적 전후를 구가한 사실을 비가시화한다.

따라서 현대 일본의 대중적 민주주의관의 몇몇 주요 전제가 패전과 냉전이 교차한 맥락에서 형성된 점을 이해하는 것은 이 관점의 특징과 한계뿐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의 기원을 인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길>은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안내하는 중요한 창구다.

참고문헌

자료

- 根本良雄(1950a), 「愛情をもって育てたい」, 日本放送協会 編(1950).
 根本良雄(1950b), 「〈新しい道〉の企画ノートより」, 『放送文化』 5(8).
 文部省(1995[1948-1949]), 『民主主義: 文部省著作教科書』, 復刻版, 東京: 径書房.
 パートランディアス, リチャード(1950), 「聴取者は望んでいる」, 『放送文化』 5(8).
 善田英夫(1950a), 「演出に全情熱を」, 日本放送協会 編(1950).
 善田英夫(1950b), 「私の演出メモより」, 『放送文化』 5(8).

日本放送協会 編(1950), 『新しい道』, 東京: メトロ出版社.

長岡昌(1950a), 「脚本家の弁」, 日本放送協会 編(1950).

長岡昌(1950b), 「〈新しい道〉の楽屋裏」, 『放送文化』 5(8).

春日由三(1950), 「序」, 日本放送協会 編(1950).

“Audience Response to the ‘Primer of Democracy’ (New Road) Radio Program” (1950),
From Bertrandias to Herrick, March 28, Folder 7, Box 5319, RG 331.

“BCJ Report on Mail Response to ‘Primer of Democracy’ Radio Series” (1950), March 24,
Folder 7, Box 5319, RG 331.

“BCJ Social Division Personnel” (1949), From Huggins to Mr. Grews, January 28,
Folder 15, Box 5317, RG 331.

“BCJ Statement of 23 July 1950” (1950), Folder 15, Box 5317, RG 331.

“Efforts of Radio Branch to Combat Communism” (1951), Intra-sectional
Memorandum from OIC, Radio Branch to Chief, Information Division, June 18,
Folder 15, Box 5317, RG 331.

“Mail [sic] from Listeners no. 209 (19 to 25 Feb)” (1950), March 2, Folder 11, Box 5314,
RG 331.

“Mail [sic] from Listeners no. 211 (5 to 11 March)” (1950), April 6, Folder 11, Box 5314,
RG 331.

“Methods to Combat Communism via BCJ Programming Recommended by the Radio
Branch” (1951), April 15, Folder 15, Box 5317, RG 331.

“Radio Organ Magazine Opinion Survey on ‘What the Public Wants from BCJ
Broadcasts,’ Hoso [sic], 1 July 1949” (1949), Folder 4, Box 5320, RG 331.

“Report of Committee to Study Methods to Combat Communism” (1949),
Memorandum from Dixie Lindsey to Mr. Grews, Chief, Radio Branch, March 25,
Folder 15, Box 5317, RG 331.

“Speech by Kenneth C. Royall, Secretary of the Army, on the United States Policy for
Japan”(1948), January 6, ‘The World and Japan’ Databas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The University of Tokyo, 2024. 12. 31. [https://worldjpn.net/
documents/texts/JPUS/19480106.S1E.html](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JPUS/19480106.S1E.html).

“Steps Taken by the Radio Branch to Combat Communism” (1951), Intra-sectional
Memorandum from Radio Branch to Don Brown, Chief, Information Division,
June 16, Folder 15, Box 5317, RG 331.

“Weekly Report (from 19 to 25 February 1950) Issued by the Fan Letter Unit” (1950),
February 27, Folder 11, Box 5314, RG 331.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28 April through 4 May 1949” (1949),
May 5, Folder 7, Box 5318, RG 331.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3 to 9 November” (1949), November
10, Folder 7, Box 5318, RG 331.

-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7 to 23 November” (1949), November 24, Folder 7, Box 5318, RG 331.
-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2 to 8 March 1950” (1950), March 9, Folder 8, Box 5318, RG 331.
-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6 to 22 March 1950” (1950), March 23, Folder 8, Box 5318, RG 331.
- “Weekly Report of Radio Branch for the Period of 11 August to 17 August 1950” (1950), August 18, Folder 8, Box 5318, RG 331.
-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1951), “Plans for Fiscal Year 1952 (1 July 51 – 30 June 52),” April 22, Folder 13, Box 5317, RG 331.
- Kaye, [Anthony] (연도미상), “Primer of Democracy,” Folder 15, Box 5317, RG 331.
- Radio Branch (연도미상), “Primer of Democracy,” Folder 15, Box 5317, RG 331.

논저

- 나가하라 게이지(2011), 하종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서울: 삼천리.
- 박진우(2011), 「일본 ‘전후역사학’의 전개와 변용」, 『일본사상』 21.
- 오구마 에이지(2019), 조성은 역,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서울: 들베개.
- 정지희(2020a), 「전후 민주주의와 그 적들: 미군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와 냉전 자유주의」, 『동양사학연구』 152.
- 정지희(2020b),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 미일 합작의 진실 찾기와 역사 다시 쓰기」, 『일본비평』 22.
- 조판자(2017), 「‘전후’의 시간의식과 ‘탈전후’의 지향성」, 『탈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서울: 박문사.
- 吉見義明(2014), 『焼跡からのデモクラシー: 草の根の占領期体験』 下, 東京: 岩波書店.
- 吉見義明(2015), 「今こそ『8・15』の原点を見つめよ: 戦後の精神と文部省教科書『民主主義』を読む」, 『金曜日』 23(17).
- 内田樹(2021), 『戦後民主主義に僕から一票』, 東京: SBクリエイティブ.
- 島田顕(2013), 「伝えようとしていた人と伝えなかった人々: シベリア抑留者の消息とモスクワ放送」, 『日口交流』 357.
- 島田顕(2016), 「第二次世界大戦中のモスクワ放送: モスクワからの日本語放送はいかにして開始されたのか」, 『アジア太平洋討究』 27.
- 明神勲(1994), 「文部省著作社会科教科書『民主主義(上)』(“Primer of Democracy”)の成立経緯」, 『日本の教育史学』 37.
- 富田武(2013), 『シベリア抑留者たちの戦後: 冷戦下の世論と運動 1945-56年』, 京都: 人文書院.
- 山本武利(2013), 『GHQの検閲・諜報・宣伝工作』, 東京: 岩波書店.

- 三谷太一郎(2016), 『戦後民主主義をどう生きるか』,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岩波書店編集部 編(2016), 『私の「戦後民主主義」』, 東京: 岩波書店.
- 日本放送協会 編(1965), 『日本放送史』上, 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 片上宗二(1993), 『日本社会科成立史研究』, 東京: 風間書房.
- Masuda, Hajimu (2015),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19), "The Contours of Cold War Liberalism (Berlin's in Particular)," in *Isaiah Berlin's Cold War Liberalism*, edited by Jan-Werner Müller, Singapore: Springer.

원고 접수일: 2025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5년 2월 13일

ABSTRACT

The Mass-Mediated View of Democracy and Cold War Liberalism in Occupied Japan

Jung, Ji Hee*

The New Road, The Media Mix of
The Primer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 of democracy that Japanese progressive liberal intellectuals often advocat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st-postwar trend. It aims to clarify the fundamental premise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erception in the context of the aftermath of the Asia-Pacific War and the rise of the Cold War. The study focuses on the U.S. occupation period, during which this perception was established, as well as the role of media in disseminating this specific view. It analyzes the first season of the NHK documentary drama *The New Road* (1949-1950), the media mix of the Japan's first postwar textbook on democracy, *The Primer of Democracy*. This historicization reveals that the democracy popularized by the show was rooted in Cold War liberalism.

Keywords Postwar Democracy, Cold War Liberalism, NHK Radio Broadcasting, U.S. Occupation of Japan, Asia-Pacific War

www.kci.go.kr
*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